

2023

콜롬비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 지표	5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콜롬비아 첫 진보 성향 대통령의 탄생	6
나. 페트로 신정부, 새로운 세제 개혁(안) 의회 제출	10
다. 신정부 집중 개발 산업 - 농업	13
라.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14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9
2. 시장 분석	3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31
나. 수출	32
다. 투자 진출	34
라. 프로젝트	37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8
가. 교역	38
나. 투자	41
다. 협력 유망 분야	43

III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5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6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3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7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8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9

2023

콜롬비아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신정부 출범으로 여러 정책 및 국제 관계 변화 예고

- 콜롬비아 첫 진보 성향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관계, 인플레이션, 환율, 투자, 무역 등 다변화 전망. 특히 석유, 석탄 수출 중심에서 농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FDI의 주요 관심 투자 종목에도 변동 예상
- 특히 페트로 新정부의 '23년 세제 개혁안에 국가 부채 해결 및 저소득층 구제를 위한 소득세 범위 확대 방안 및 여러 면세 혜택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및 기업 경제 활동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 콜롬비아 중앙은행, IMF는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상, 세계 경제 침체 위기 등의 영향으로 '23년 콜롬비아 경제가 성장 둔화 전망

나.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백만 명	48.65	49.07	49.46	49.78	50.3	51.04	51.6	52.1
명목GDP	십억 달러	282.7	311.8	339.7	323.6	270.4	314.5	323.8	348.6
1인당 명목GDP	달러	5,871.2	6,377.8	6,718.6	6,432.3	5,368	6,161	6,365	6,469
실질성장률	%	2.1	1.4	2.5	3.3	-6.8	10.7	6.5	2.2
실업률	%	9.2	9.4	9.7	10.5	15.9	13.8	10.4	9.1
소비자물가 상승률	%	5.7	4.3	3.2	3.8	1.61	5.6	12.0	4.7
재정수지 (GDP 대비)	%	-2.3	-2.7	-2.9	-2.4	-7.8	-6.8	-4.8	-4.4
총수출	백만 달러	31,757	37,770	41,835	39,496	28,637	41,389	60,515	66,577
(對韓 수출)	"	433	651	834	718	684	585.7	-	-
총수입	"	44,889	46,076	51,231	52,703	43,489	56,648	68,090	70,189
(對韓 수입)	"	853	814	1,012	1,143	593	859.7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3,132	-8,306	-9,396	-13,207	-12,433	-9,259	-7,575	-4,612
경상수지	"	-12,008	-10,341	-14,187	-14,991	-9,258	-17,892	-16,790	-15,996
환율 (연평균)	현지국/US\$	3,050	2,951	2,956	3,281	3,693	3,743	4,308	4,320
해외 직접 투자	억 달러	4,517	3,690	5,126	3,153	1,685	3,161	1,342*	-
외국인 직접 투자	억 달러	13,858	13,701	11,299	13,989	7,459	9,310	5,186*	-

주: 2022년 1Q 기준 추정치, 2023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KITA, GTA, Banrep, DANE, 콜롬비아 재무부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정부) 콜롬비아 첫 진보 성향의 대통령 당선
- ※ (산업) 페트로 신정부 주요 개발 산업은 농업과 재생에너지
- ※ (개혁) 세제 개혁으로 법인세 및 기타 세제 혜택에 변화 예정

가. 콜롬비아 첫 진보 성향 대통령의 탄생

■ 2차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대통령 당선

● 콜롬비아 첫 진보 성향 대통령의 탄생

- 무소속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를 상대로 2차 선거까지 벌이는 등 접전이 있던 이번 대선에서 3번째 도전했던 진보 성향의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에르난데스 후보를 약 70만 표 차이로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8월 7일부터 공식 임기 시작
- 페트로 대통령은 과거 게릴라 단체인 M-19*의 일원이었으나 '91년 무장단체와 정부의 평화협정 후 하원의원에 당선. 보고타시 시장과 상원의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히 정치 활동 펼쳤음
 - * M-19 : 1974년부터 1990년대까지 활동했던 콜롬비아 좌익 유격 조직
- 인권 및 여권 신장, 자연보호, 농업의 상업화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
 - * 대통령 당선 전 추진 사업: 여성을 위한 사무국 창설, 성소수자 인권센터 출범,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피임 및 낙태 치료센터 설립, 총기 소지 금지 법안 추진, 식수 보급 프로그램 확대 등

〈 2022 콜롬비아 대선 결과 〉

후보자	1차		2차		득표차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구스타보 페트로 우레고	8,527,768	41.09%	11,281,002	50.44%	+2,753,234	+9.35%
로돌포 에르난데스	5,953,209	28.68%	10,580,399	47.31%	+4,627,190	+18.63%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5,058,010	24.37%	-	-	-	-
세르히오 파하르도	888,585	4.28%	-	-	-	-
존 밀톤 로드리게스	274,250	1.22%	-	-	-	-
엔리케 고메스 마르티네스	50,539	0.00%	-	-	-	-
전체 투표수	20,752,361	100%	-	-	-	-

자료: 콜롬비아 국가기록소

■ 페트로 대통령 당선 요인 분석

- 보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타도와 빈곤 해결, 경제 불균형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아, 빈곤, 실업 등 사회구조적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前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 또한, 부통령으로 출마한 프란시아 마르케스는 페미니즘, 환경운동가, 흑인 여성 대표로서 이제껏 엘리트 관료주의를 표방해온 보수 정당과는 대비되어 많은 여성과 흑인들의 지지율을 이끌어냄
 - 이외에도 표심이 분산된 이유로 보수 정당의 다수 후보, 대선 토론에서의 설득력 부재, 장기적 정치 비전 부재, 진보 정당을 상대로 한 네거티브 대선 전략의 실패 등을 꼽을 수 있음

〈 구스타보 페트로 대선 공약 〉

구 분	내 용
치안 및 분쟁	- 콜롬비아 분쟁 종결을 목적으로 분쟁의 점진적 개혁 - 입대 의무 폐지 - 경찰을 내무부 혹은 법무부 산하로 조정 - ESMAD(시위대응부대) 해산 - 사회 지도자들의 보호정책 - 교화 목적의 사법 복원 및 교도소를 교화 공간으로 전환 - 내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및 배상에 필요한 자원 보장 - 내전으로 사유지를 상실한 자들을 위한 토지 반환 조치 촉진 - 코카인 수입에 대한 정부의 거시적 의존도 제거 - 코카인 대체품을 이용한 농촌 인구의 코카인 의존도 제거 - 대마초 및 코카인 파생 상품 실용성 조사 - 범죄 자금 후원자 색출, 국가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범죄조직 해체를 위한 평화적인 방법 모색
경제	- 민간 고용의 보완책으로 실업자들에게 정부 보조금 제공 - 소유권 공식화 및 미사용 토지 방지 방지 - 토지 소유자에게 경작을 독려하거나 세금 부과, 혹은 정부에 토지를 팔게 함으로써 대규모 비경작 방지 - 최종 평화 협정에 수립된 농지 개혁, 토지 소유권 활성화 - 농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스마트 관세 - 비료나 소모품에 대한 국내 산업 발전 - 토종 종자 보호 및 육성 - 석탄 및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모델로 전환 - 철도 및 하천을 이용한 제3의 항로 개발 - 빈곤선 이상의 최소 소득 보장 - 연금 비수혜 노년층 대상 최저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 상여금 제도 도입 - 모든 노동자 연금 시스템 가입 의무화 - 중소 식품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식품 지원을 통한 기아 대책 계획 - 시장 경쟁 저해, 광산업 장려 및 고소득층에게 특권을 주는 세금 혜택 점진적 폐지
교육	- 0~6세 영유아 대상 무상 보육 서비스 - 등교 중지 학생 수색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 교통비 보장, 가족 지원, 교육일 연장 - 기술대학 및 일반대학 수준에서 청소년 대상 무상 교육 서비스 보장 - ICETEX 학자금 대출 시스템 사용자의 대출금 면제
건강	- 건강보험사의 중개 없는 통합 건강 시스템 수립 - 누진세와 공평한 기여금으로 시스템 자금 조달 - 의료 시스템 단일화, 의료 서비스 수준의 안정화와 더불어 콜롬비아 원주민들의 전통 의료 지식재산권 보호 -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지역 보건위원회 설립 -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약 부문의 재산업화 촉진 -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유연성을 실효화하기 위한 국제적 의제 추진 - 청소년 임신 예방을 위한 국가 계획 추진 - 여성들의 위생적인 성생활을 위한 피임 방법 및 주요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 제공 - 낙태를 합법화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구분	내용
인권	- 여성들이 공공 부문 모든 보직의 최소 50% 차지하는 여성 할당제 추진 - 평등부 신설 - 재택 요양 여성 종사자들을 연금 시스템에 통합 - 여성 증오 범죄 종합대책 마련 - 의회의 라이살族 의석 확보를 법으로 규정, 팔렌케로族 및 롬族 지원 및 보호 - 아프리카계 후손 공동체와 콜롬비아 원주민들을 위한 영토 확대 - 성별 다양성 보장 및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권리 보장. 동성 커플 또한 커플의 한 유형으로 인정, 입양에 관한 권리 및 사회보장 인정 - 명확한 프로토콜과 트랜스젠더들의 참여를 통해 성전환을 위한 의료 서비스 및 성 상담 지원 - 평등과 종교의 자유 보장
환경	- 광산업 추출 모델의 점진적 변화 - 非전통적 탐사방식 및 프래깅 파일럿 프로젝트 금지 -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가속 - 수소 프로젝트 실행 촉진 - 탄화수소 탐색 인가 및 노천광 금지 - 현재 화석 연료 매장량 추출은 국내 소비를 위해 사용 - 소규모 생산자 및 협동조합의 청정에너지 사업 자금 조달 - 화물운송 및 여객 수송용 디젤 차량, 철도 등 청정 에너지 사용 추진을 위한 점진적 변화 - 광산업 피해 지역 및 강의 수질오염을 광산 회사가 복구하도록 촉구 - 황무지 및 하천 유역 보호 - 에너지 발전소 및 광산 프로젝트 관련 지역 수로 환경관리 - 탄소 흡수 배당금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 복구 및 기후변화 대응 촉진 - 환경보호와 권력기관의 직무 분리 - 콜롬비아 원주민들과 아프리카계 후손 공동체들의 주거 지역에 대한 환경 권한 부여 - 내전으로 인한 분쟁지역을 임업, 농업, 농·생태학 및 농경지 목축지역으로 전환 - 글리포세이트 살포 등 독성물질 사용 금지 - 환경 권리를 옹호하는 개인과 단체의 보호를 보장
부패 방지	- 국가의 중대사 결정 시,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장하고 주민 참여 예산 장려 - 모든 공관의 계약 업무 감독 강화 - 법무장관실 및 감사원 개혁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부패 신고를 한 내부 고발자 보호법안 발의 - 공공기금 수령자에 한해 조세 피난처 이용 금지 - 공공기관 내의 이중계약 철폐 및 행정직 촉진
국제정책	-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 국내 및 지역 생산 회로의 촉매제로서 대외무역 촉진 및 식량주권 보호 - 탄소 흡수 배당금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 복구 및 기후변화 대응 촉진 - 기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상호 준수 및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집단 지원 - 국제질서 존중 및 타국 내정 불간섭 - 외국인 혐오 및 차별 타파. 콜롬비아 내의 이민자 인권 보장 - 마약 방지 재정금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의 경제 혁신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전환

자료: 페트로 선거팀 공식 발표 자료

나. 페트로 신정부, 새로운 세제 개혁안 의회 제출

■ 사회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위한 세제 개혁안 발표

-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하루 뒤인 8월 8일 내놓은 첫 세제 개혁의 목표는 첫째 250억 콜롬비아 페소(약 5,747백만 달러)를 조달하는 것
 - 동 개혁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거친 후 의회의 시행 승인을 받을 경우 '23년부터 적용될 예정
- 세제 개혁의 단기 목표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 체계 구축 및 사회 프로그램 강화, 장기 목표는 빈곤 극복, 불평등 감소, 식량주권 보호 등임
- 확보된 세금으로는 전 정부의 재정적자를 상쇄할 계획이며, 상세세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바뀔 예정
- 이번 세제 개혁은 극심한 빈곤율과 납세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부담의 균형을 고소득층의 세금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해결
 - 본 개혁은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재정 정책을 재구성

납세 유형	내용
자연인	일반 근로자 혹은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 납세 유형으로, 소유한 자산 혹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 유형으로 법인세

- 콜롬비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UVT(세금 책정 단위)를 사용하며, 이는 사회 경제적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 운영을 의미함
- 자연인에 대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공평한 과세표준 유지 및 고액 소득 자연인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 세율 인상
 - * 2022년 기준 1UVT = \$38,004

〈 월 고정소득과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 〉

(단위: 백만 페소, USD, %)

월간 총 소득	총 소득 달러* 환산	現 세법에 따른 세율	개혁 후 세율
1	230	0.0	0.0
3	700	0.0	0.0
5	1,150	0.0	0.0
11	2,520	4.6	6.4
15	3,440	7.8	9.7
20	4,600	9.7	12.5
25	5,700	12.5	15.4
45	10,300	15.2	22.0
140	32,000	16.4	25.7

주: 적용 환율 1USD = 4,347.8페소

자료: 콜롬비아 재정부

- 비정기 소득에 대한 세금(복권, 카지노와 같은 게임료, 상속 부동산을 제외한 유산, 부동산 매도 등) 또한 세율이 인상됨

現 세제에 의한 비정기 소득에 대한 세율	10%
新 세제 개혁에 의한 비정기 소득에 대한 세율	20%

자료: 콜롬비아 재정부

- 연금 소득자에 대한 세금의 경우 이전에는 연간 연금 소득 12,000 UVT 이상 또는 다른 소득원으로 연간 연금 소득의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경우 소득세 납부 대상이었지만 개혁안은 연금 소득세 기준이 1,790 UVT 이상으로 대폭 낮춰져 납세 대상이 확대됨

세제 개혁안 이전 고액 연금 기준선	COP \$ 456,096,000*
세제 개혁안 이후 고액 연금 기준선	COP \$ 68,027,160*

주: 2022년 UVT 가치 기준 (1UVT = 38,004페소)

자료: 콜롬비아 조세관세청

- 상속세의 경우 소득이 신고된 경우 소득세를 뺀 나머지는 한계세율로 계산하여 부과되고,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일세로 처리

〈 UVT 기준 범위에 따른 자연인 상속세율 〉

(단위: 백만 페소, USD, %)

UVT 범위	콜롬비아 페소*	달러 환산가	한계세율
0~72,000	0.0~2,736	0.0~628,975	0.0
72,000~122,000	2,736~4,636	628,975~1,065,890	0.5
122,000 이상	4,636 이상	1,065,890 이상	1.0

주: 적용 환율 1USD = 4,350COP

자료: 콜롬비아 재정부

■ 법인의 경우 일부 특정 분야에 집중된 세제 혜택 철폐

- ICA 세금(산업통상세) 폐지. 일부 대도시에서 위치한 제조 산업, 상업, 서비스 기업의 소득이 391UVT(14,860,000페소) 이상일 경우 반기별로 50% 할인 혜택을 주었지만, 신규 세제 개혁안은 동 혜택을 폐지
- 라 구아히라, 노르테 데 산탄데르, 아라우카 등 콜롬비아의 일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킵도 등을 특별경제사회구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와 부가세 등 세제 할인 혜택을 주었지만 이러한 혜택 폐지 예정
- 무관세 지역 조건 변경. 현재 자유무역지대 기업의 소득세는 20%(정상 세율 35%)를 적용했으나 정부는 동 혜택이 수출량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용 창출 및 수출량 증가 등의 생산성 증대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35% 기준 세율 인하 혜택 제공
- 콜롬비아의 금융 분야는 기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4xmil*의 수수료 징수 혜택 적용 중이며, 동 세제 개혁안에서는 총 소득세의 35% 외에 3%의 추가 세금을 더 내는 은행에 한해서만 고객에게 금융거래 과세를 청구하도록 수정
 - * 4xmil: 콜롬비아 금융거래세. 고객이 한 달간 일정 금액 이상 계좌 내 현금을 사용할 경우 거래 금액의 1천 페소당 4페소의 수수료 부과
- 광업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광산회사의 경우 이제까지 지급한 로열티는 소득세에서 공제되었으나 동 혜택을 폐지하고, 원유, 석탄, 금 수출 금액에 10% 세금 징수 예정이며, 이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모델 전환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의 1차 산업 의존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업의 사회나 상업 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정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에서 30%로 인상

■ 건강 및 환경 관련 세금 적용

- (건강세) 과당 음료 세금. 정부는 과도한 설탕 소비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 설탕 함유량 대비 부가 세금가 〉

(단위: 콜롬비아 페소)

100ml당 설탕 함유량	부가 세금 가격
4g 미만	0
4~8g	18
8g 초과	35

자료: 콜롬비아 재정부

- (초가공 식품) 초가공 식품 또한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했을 경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품가의 10%를 세금으로 부과
- (탄소세) '16년 법률 제1819호의 탄소세 적용 범위 수정 제안. 동 법은 내수용 탄소 판매에 대한 세금은 제정했지만 외수용 수출 세금은 미포함. 현재 적용되는 내수용 탄소 세율은 CO2 1톤당 COP \$ 18,829. 현재는 탄소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2024년까지는 세율 변동이 없을 것이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세율이 변경될 예정

〈 연도별 탄소 세율 변화 〉

(단위: %)

적용 연도	2023~2024	2025	2026	2027	2028 이후
적용 탄소 세율	변화 없음	25	50	75	100

자료: 콜롬비아 재정부

- (일회용 플라스틱) 플라스틱 용기 및 기타 품목에 들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1g당 0.00005UVT*의 세금 부과
* '22년 UVT 단위 기준 적용 계산 시 = 1페소

■ 사회 영향 세금(Impuestos de impacto social) 변화

- (부가세 면제 기간(Dia sin IVA)) 신정부에 따르면 1년에 3일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없는 날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이 없으며 이미 안정 궤도에 있는 소매업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으로 재차 진행할 계획이 없음을 발표
- (연료 보조금)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서 양국 간 연료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밀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경 주변 도시들을 대상으로 연료 면세 혜택을 주었으나 동 개혁안은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외에도 국내 연료 공급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연료 판매 기업에 지급했던 보조금 폐지안을 제시함. 동 안건이 의회에 승인을 얻을 경우 콜롬비아 내 연료비 상승이 예상됨
- (무역 부가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긴급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다. 신정부 집중 개발 산업 - 농업

■ 석탄, 석유 중심의 국가 산업 구조 개혁을 위한 농업 활성화

- 개혁은 일차적으로 '16년 제정된 평화협정의 농업 정책 기반 활용 강화
 - 재정적 요소, 합법적 재분배, 정부 주도의 토지 매입을 통해서 불모지 및 경작되지 않는 비옥한 토지 활용 및 농산물 생산 체인 촉진 방안 모색
 - 또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국가 식량 안보 계획을 보장하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산림 벌채 중지, 정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취약지역에 일자리 기회와 기업 발전을 보장
 - 광산업, 원자재,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며 새로운 재정 확립 요소로 자리 잡기 위한 식품 생산 영역의 다각화 시도
- 농업 개혁 세부 절차
 - 개혁은 먼저 내전으로 토지를 상실한 기존 소유자에게 정당한 토지 반환 절차 진행. 이후 정부는 농림부를 통해 농업 식품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행할 토지 구매와 취득 절차 시작
 - 생산적 토지 구매 및 획득 절차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량 생산을 보장하고 자연보호와 농업의 혜택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 생산을 촉진할 것
 - 농업 발전을 위한 현대화 및 기술화 과정을 실행하고 신기술과 과학 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경작 방법들을 도입
 - 농업 발전이 식품 생산 및 공급망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비료나 기타 농업 투입물 국내 제조 산업 지원 예정

〈 항목별 농업 개혁 세부정책 〉

토지 재분배	- 최종 평화협정에 수립된 농지 개혁, 토지 소유권 활성화 - 내전으로 사유지를 상실한 자들을 위한 토지 반환 조치 촉진 - 소유권 공식화 및 미사용 토지 방치 방지
세금	- 토지 소유자에게 경작 독려, 세금 부과 혹은 對정부 토지 판매 유도로 대규모 非경작 토지 방치 예방 - 농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스마트 관세 적용
관련 산업 육성	- 비료나 소모품에 대한 국내 산업 발전 - 토종 종자 보호 및 육성 - 코카인 수입에 대한 정부의 거시적 의존도 제거 - 코카인 대체품을 이용한 농촌 인구의 코카인 의존도 제거 - 대마초 및 코카인 파생 상품 실용성 조사

- 정부 주도 농업 발전 실행은 콜롬비아 농업 부문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며, 해외 기업의 對콜롬비아 농기계 및 자재 등 시장 진출 기회 有

라.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 정책

● '17년 파리협약 수용으로 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한 목표 수립

- 법률 제1884호를 통해 파리협약 수용 후 '18년 7월 법률 제1931호를 기반으로 기후변화협약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콜롬비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 목표를 수립

〈 콜롬비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목표 기간	감축 목표량	주요 내용
2020~2030	'20년 대비 -30%	현재 진행된 감축 조치 성과에 따라 '30년까지 30% 감축 목표 수립 기후변화 조치를 위한 계획 및 투자는 완화(12%), 적응(57%), 통합(31%)으로 구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금 조달은 국가 공공투자(36.4%), 대출 및 다자간 금융 (43.3%), 국제원조(3.8%), 민간투자(6.2%), PPP(10.4%)

자료: 콜롬비아 환경부

- 이후 법률 제1447호를 결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 결과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전략과 관리 정책을 갖추

〈 콜롬비아 국가온실가스 감축 사업 관련 정책 및 법령 〉

법령	주요 내용
법률 제1844호	- '15년 파리협약 COP 5 목표 채택 및 준수 - UNFCCC 관행 적용과 이에 따른 완화 및 감소 모니터링 결과 준수 - 파리협약 요구조건을 국가의 의무 목표 준수로 이행
법률 제1931호	- 기후변화 관리 및 환경정책 - 기후변화 관리, 목표, 규정 준수를 국가정책으로 설정 - GHG 감축, 적응 감축 계획과 활동 목표 설정 -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의 PIGCCS별 계획 수립
CONPES 3700	- 모든 정부와 민간 기관은 LEDS 목표를 위해 정책 및 준수조건 수립 - CONPES 3700은 지역 또는 정부의 장기 개발 계획에 포함해야 함

- '21년 콜롬비아 정부는 에너지 전환법 제1715호 공식 발효. 에너지 전환법은 수소 및 재생에너지와 기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정리
- 특히 동 법안으로 기존에 민간 부문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국가 상호 연결 시스템(SIN)을 통해 판매할 수 없었던 제한을 해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전환법에 따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투자 기업에 법인세, 부가세를 비롯해 관세 인하 혹은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정 범위도 확대함

〈 재생 가능 에너지원 프로젝트 세금 인센티브 〉

소득세	총투자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공제 기간 5년→15년으로 변경
부가세	부가세 및 관세 면제
감가상각비	연간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고 20%에서 최대 33.3%로 인상

자료: 에너지 전환법 법률 제1715호

■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 '20년 감축 조치 성과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1% 감축 목표 재수립 발표
- 특히 콜롬비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4년부터 환경부 산하의 SISCLIMA(기후변화 연구기관)를 설립해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감시·관리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447호를 규정하고 데이터 플랫폼(RENARE)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 준수 여부 측정 체제를 수립
- * RENARE는 GHG 배출에 관한 특정 계획 및 기업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포함. 콜롬비아 부문별 기후변화 관리 통합계획 (PIGCCS) 및 국가 온실가스 완화 조치(NAMA)와 같은 계획 혹은 온실가스 생산과 관련된 기업은 GHG 감축 성과 측정을 위해 필수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주요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단위: Mt CO₂ eq)

구분	2015	2020	2025	2030
에너지	86.67	88.6	106.47	124.8
제조업	9.42	10.66	14.54	18.41
농업	117.94	170.44	186.45	174.5
폐기물 처리	19.55	95.55	25.24	28.09

자료: 콜롬비아 환경부(MinAmbiente)

〈 콜롬비아 LEDS 8개 주요 분야별 실행계획 〉

분야	주요 내용
농축산업	◦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 사탕수수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연료 생산
전력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으로 전력 효율화 추진 ◦ 바이오매스,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해양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자원 개발
원유	◦ 원유 생산 시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및 원유 회수 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기술 도입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추진
광업	◦ 광업 시설 운영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교통 및 운송	◦ 2040년까지 전국 택시 20% 전기차량으로 교체, 40%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 ◦ 2024까지 운행 30년 이상 상용차량 약 5,000대 폐차 처리 진행 ◦ 2040년까지 천연가스 화물차량 도입 확대(전체 비중 15% 달성) ◦ 공공 자전거 서비스 추진,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대 등
하수처리	◦ 하수처리 플랜트에서 파생되는 바이오 가스 활용으로 전력 생산 추진
주택	◦ 친환경 건설 자재 사용 확대를 위한 '녹색 건축' 기준 마련(재활용, 친환경 자재 사용 비중 등) 및 인센티브 제공 ◦ 주택단지 내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제조업	◦ 주요 제조업(시멘트, 플라스틱 등) 생산 활동에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산 장비 구매 및 노후화 장비 교체를 위한 정책 마련

- 콜롬비아 정부는 수소 개발을 위해 수소 로드맵을 5개 주제(①배출 감소, ②경제성장, ③공정 전환, ④국가 목표, ⑤지역사회)로 구분해 수립했으며, 수소 활용 확대를 위해 2020/30과 2050 두 개의 실행 목표로 나누어 진행 예정
- 국제 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국제 에너지 포럼 보고서에서 콜롬비아는 바람, 일조량, 수자원 및 지리적 위치 특성 때문에 2030년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녹색 수소 수출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 있다. 2050년에는 중국, 칠레, 모로코에 이어 4번째로 낮은 녹색 수소 가격(수소 1kg당 1.1달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콜롬비아 수소 로드맵 2020/30 수소 활용 목표 〉

생산	녹색수소		청색수소
	전기분해 설비용량 1~3GW	녹색 LCOH 획득 1.7USD/kg	청색수소 생산 50kt H2
수요	교통		산업
	연료 전지 승용차 도입 1,500~2,000대	연료 전지 대형 화물차 도입 1,000~1,500대	연료 전지 충전소 설치 50~100곳
기대 효과	2020/30 10년간 수소 생산 및 수요 프로젝트 투자 예상 금액 2,500~5,500백만 달러		총 수소 소비량 중 녹색수소와 청색 수소 비중 증가
	2020/30 10년 동안 창출될 직/간접적 일자리 수 7,000~15,000개		2020/30 10년간 탄소 배출 감소량 2.5~3Mton CO2

자료: 콜롬비아 에너지부, BID

〈 콜롬비아 수소 로드맵 2030/50 수소 활용 목표 〉

녹색수소						
수소 적용분야	수소 수출	광산용 트럭	발전소 증비	항공 연료	철강 산업	선박 연료
← 2030-----2050 →						

저공해 수소의 미래 잠재력 활용 극대화 목표

자료: 콜롬비아 에너지부, BID

〈 수소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

구분	주요 계획
인프라	- 연료/전지 차량 1,000대당 최소 20개 충전소 구축 - 수소 생산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중남미 수소 에너지 주요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카리브 해안 지역에 수소 에너지 저장 인프라 구축
정책 및 규정 자문	- 정부는 CO2 포집, 사용 및 저장을 위한 기술의 촉진·개발에 필요한 규정 수립
기타	- 수소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위한 기업 등록 시스템 개발

자료: 콜롬비아 에너지부, BID

2023

콜롬비아 진출전략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경제) 2021년 대비 연간 GDP 기저효과로 콜롬비아 2분기 성장률 폭발적 상승
 ※ (산업) 토지 재분배 및 경작 독려를 통한 식량 안보 확보와 중심 산업 교체
 ※ (정책) 사회 프로그램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단행, 건강세, 환경세 적용

가. 정치 환경

■ 콜롬비아 정치 환경

정부 형태	대통령제 (4년 단임제)
국가 원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 '22년 8월 7일 임기 시작
입법부	양원제 (상원 108석, 하원 172석)
주요 정당	국민연합사회당, 자유당, 보수당, 급진변화당, 녹색당 등
정부 성향	자유민주주의, 친미 우익 성향

● 콜롬비아 정치 성향

-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남미 국가와 달리 보수 성향이 강했으나 이번 '22년 6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진보 성향의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 또한 콜롬비아 정부의 경우 오래전부터 친미 우익 성향을 유지하고 있음
 - * 제58대 우리베(Uribe) 대통령, 제59대 산토스(Santos) 대통령, 제60대 두케(Duque) 대통령 모두 보수 성향 출신

● 콜롬비아의 국가 부패 환경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콜롬비아는 전체 180개국 중 87위 차지
 - * 공동 1위 :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 32위 : 한국 (부패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음)

■ '22년 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세금 개혁안 발표

- 주요 내용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세금 정책을 재구성하였는데, 자연인의 경우 고소득층, 사치품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 기업의 경우 기존의 세금 할인 및 면제 등을 철폐하고 생산성 증대 기업에 세제 혜택, 이 밖에 건강세, 환경세 등의 정책 포함

나. 경제 환경

■ 콜롬비아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전망

- 유리한 무역조건, 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의 긍정적 효과, 일부 재정 부양정책 실행, '21년의 악화된 경제 지표로 인한 반등 효과로 '22년 1분기 긍정적 경제 성장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진보 성향인 페트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1분기의 호황은 적절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세금과 공공 지출 인상, 수출과 민간 소비, 총 고정 투자 위축 가능성 有
- 콜롬비아 재무부는 올해 GDP 성장 목표를 6.5%로 유지하면서도 높은 인플레이션, 국가 재정난, 외환경상수지 측면에서 국가 대외수지 불균형이 커 투자 등급을 곧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고려해 '23년 GDP 전망치를 3.2%에서 2.2%로 하향 조정

〈 연도별 경제성장률 현황 〉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5	3.3	-6.8	10.7	6.3	1.5

주: 2022년, 2023년은 전망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2.7)

■ 민간 소비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목표 인구 달성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소비활동이 크게 회복되었으나 폐소화 가치 평가절하, 수입 컨테이너 수급 부족 및 운임 비용 상승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특히 가계 소비에 가장 중요한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의 물가 상승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민간 소비 증감률 〉

(단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3.9	-5.6	14.8	6.2	0.8

주: 2022년, 2023년은 전망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2.7)

환율

- 페트로의 당선과 동 당선인의 정책 실현 불확실성은 페소의 가치 하락을 유발했으며, 이러한 영향은 '22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활발한 통화 긴축정책도 페소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22년 11월 역사상 최고치인 1달러당 5,118페소 기록을 경신했으며, 현지 설문조사 결과 금융기업을 비롯한 콜롬비아 경제학자들은 '23년 연평균 1달러당 4,300페소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달러 대비 콜롬비아 페소화 평균 환율 변화 추이 〉

(단위: COP)

2019	2020	2021	2022	2023
3,281	3,693	3,744	4,121	4,320

주: 2022년, 2023년은 전망치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2.7), Valoraanalitik

물가상승률

-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7월 통화정책 보고회에서 5%로 예측하던 물가상승률 전망을 8%로 상향 조정.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적 인플레이션 상승 현상, 노동시장 위축, 환율 변화 등의 요소가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분석
- '22년 1월부터 8월까지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9.06% 상승 기록

〈 2022년 1~8월 분야별 물가상승률 〉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분야	2021	2022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11.36	19.27
가구 또는 가정 및 일상생활 보존을 위한 물품	3.12	13.41
레스토랑 및 호텔	5.57	12.26
의류 및 신발	1.85	8.51
잡화 및 서비스	2.61	8.35
교통	3.17	6.87
건강	2.64	6.81
주택, 물,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2.36	5.38
교육	5.41	5.17
주류 및 담배	2.45	4.66
레크레이션 및 문화	0.33	4.59
정보통신	-5.83	-0.01
total	3.93	9.06

자료: DANE(2022.9)

■ 실업률

- 통계청이 '22년 8월 발표한 콜롬비아 실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업무 복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22년 7월 실업률이 11.3%를 기록하면서 작년 동월 대비 3.3% 하락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치
- 팬데믹 이후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급성장한 GDP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실업률 유지 중

〈 콜롬비아 연도별 평균 실업률 〉

(단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16.1	13.8	10.4	9.1

주: 2022년, 2023년은 전망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2.7)

다. 산업 환경

■ 도소매업, 공공 서비스, 중간재 위주 제조업 기반 보유

- 콜롬비아 제조업은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소비재 생산 기반이 취약함
-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철강 등의 일부 제조업 기반 보유
- 화훼, 커피 및 기타 농목축업 등을 주축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정책 강화

〈 콜롬비아 주요 산업별 GDP 대비 비중 〉

(단위: %)

산업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농축수산업	6.8	7.5	8.2	9.0
광업	5.5	4.9	5.8	7.8
제조업	13.1	12.8	12.7	13.2
전기/가스/수도	3.3	3.5	3.9	3.7
건설	7.2	5.7	5.2	5.0
도소매업	19.1	17.2	19.6	19.8
정보통신	3.1	3.3	3.0	2.8
금융	5.2	5.7	5.0	4.5
부동산	9.8	10.9	9.3	8.2
전문업(의료, 법률 등)	7.6	7.8	7.4	7.0
공공서비스	16.5	17.9	16.7	15.5
문화/오락	2.7	2.8	3.1	3.6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2022.9)

〈 콜롬비아 주요 산업별 GDP 대비 성장률 〉

(단위: %)

산업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농축수산업	3.9	2.5	18.5	-0.8
광업	2.0	-16.0	45.2	0.7
제조업	1.4	-7.7	24.8	15.6
전기/가스/수도	2.7	-2.5	12.5	6.1
건설	-0.1	-25.8	11.9	7.0
도소매업	4.7	-15.1	25.0	19.2
정보통신	0.4	-2.6	9.8	18.8
금융	4.6	2.1	7.6	4.1
부동산	2.8	1.9	4.3	2.1
전문업(의료, 법률 등)	3.6	-4.3	12.5	11.1
공공서비스	4.9	0.7	8.7	7.7
문화/오락	2.4	-11.5	35.6	37.0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2022.9)

■ 1차 산업 주요 품목

● 커피

- 콜롬비아는 세계 3위 커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커피 수확량의 약 9% 차지
- 콜롬비아에는 약 55만의 커피 생산자 가족들이 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커피생산자협회(Federacion Nacional de Cafeteros de Colombia)를 통해 전국 커피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량과 수확량 조사, 커피 생산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총괄하고 있음
- 다만 최근 몇 년간은 라니냐 등 기후변화로 커피 수확량이 다소 낮은 추세

〈 커피 수확량 현황 〉

(단위: 1,000자루, 60kg/1자루)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7*
커피 생산량	14,194	13,557	14,752	13,890	12,577	6,371
증가율 (%)	-0.27	-4.4	9.0	-6.0	-9.0	-8.0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Federacion Nacional de Cafeteros de Colombia(2022.8)

■ 화훼

- 콜롬비아는 세계 2위의 화훼 수출국으로 약 15만 명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GDP의 8%를 차지
- '22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콜롬비아 화훼 최대 수입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순임
- 콜롬비아 화훼수출업자협회(Asocolflores)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약 1,400~1,600가지의 화훼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되는 품종은 약 400종

〈 화훼 수출량 및 수출액 〉

(단위: 톤,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수출량	259,523	262,367	247,646	302,000	135,378
수출액	1,477	1,495	1,431	1,756	1,242

자료: PROCOLOMBIA, GTA(2022.8)

■ 석유 & 광물

- 콜롬비아의 석유 및 광물 수출 산업은 콜롬비아 경제 수입의 35% 이상을 차지
- 콜롬비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9,602개의 광업권은 312종의 광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건설자재용 57%, 석탄 17%, 귀금 11%, 석화석 5%, 공업용 광물 4%, 귀석 4%, 기타 금속 2% 순
- 특히 원유의 경우 정유소 운송을 위해 약 5,000km에 달하는 2개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생산 외국 기업들은 석유 탐사 및 추출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 측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
- 페트로 정부의 청정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산업 활동 제한 정책 증가 예상

〈 원유 수출량 및 수출액 〉

(단위: M3,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수출량	35,315,521	31,640,351	26,918,110	14,403,702
수출액	12,986	7,130	11,200	8,835

주: 전년 동기 대비, HS CODE 2709 기준

자료: GTA(2022.8)

- 한편, 석탄의 경우 '16년부터 아일랜드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러시아산을 수입하기 시작했으나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일랜드, 폴란드, 독일의 콜롬비아 석탄 수입 활동이 재개됨

〈 석탄 수출량 및 수출액 〉

(단위: kg,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1~8
수출량	71,549,081	57,834,583	55,600,379	37,330,973
수출액	4,884	3,543	4,380	6,510

주: 전년 동기 대비, HS CODE 2701 기준

자료: GTA(2022.11)

■ 주요 2차 산업

■ 제조업

- 제조업은 소매업과 더불어 '22년 상반기 GDP 성장을 견인한 주요 4개 산업 중 하나로 콜롬비아 GDP 대비 비중 약 13%를 차지
- 특히 제조업은 코로나19 대유행과 '21년 콜롬비아 총파업으로 피해가 컸던 분야이나 현재는 빠르게 회복 중이며, '22년 5월 제조 산업 생산량의 경우 작년 동월 대비 46.2% 증가하며 사실상 제조 산업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줌

〈 월별 제조업 실질 생산·판매율 〉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실질 생산율		실질 판매율	
	2021	2022	2021	2022
1월	-1.6	15.1	-3.0	16.2
2월	0.6	10.7	2.2	11.1
3월	20.7	12.3	21.1	11.2
4월	63.7	13.5	60.8	14.6
5월	8.6	46.2	5.6	45.5
6월	20.8	12.3	25.0	9.6
7월	20.1	N/A	20.8	N/A
8월	22.9	N/A	21.7	N/A
9월	15.5	N/A	14.2	N/A
10월	10.1	N/A	9.6	N/A
11월	13.9	N/A	14.2	N/A
12월	13.1	N/A	11.2	N/A

자료: DANE(2022.9)

■ 섬유/의류

- 콜롬비아 섬유/의류 관련 제조업체는 1,200개 이상, 패션 관련 산업을 포함하면 6,500개 이상으로 약 60만 명이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100만 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
- 보고타 상공회의소(CCB)에 따르면 콜롬비아 섬유/의류 산업은 총 GDP 비중 8.5%를 차지
- 또한, 콜롬비아 의류패션협회(INEXMODA)에 따르면 '21년 총 섬유/의류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5.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2년에는 전년 대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섬유/의류 수출액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1~8
수출액	931	705	1,035	739
수입액	2,686	2,258	2,816	2,261

자료: SICEX

- 콜롬비아 패션이 주로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 에콰도르, 멕시코이며, 반대로 주로 수입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수입액의 약 50%를 차지

〈 2022년 기준 콜롬비아 섬유/의류 상위 5개 수출입 국가 〉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미국	259	35.03	1	중국	1,096	48.44
2	에콰도르	103	13.86	2	인도	174	7.68
3	멕시코	91	12.31	3	베트남	148	6.56
4	칠레	45	6.11	4	미국	96	4.27
5	페루	42	5.69	5	브라질	92	4.05

주: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SICEX

■ 자동차 조립 산업

- 콜롬비아는 자동차 생산지는 아니나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르노(Renault), 히노 모터스(Hino Motors)사, 포톤(Foton)사의 자동차 조립공장과 에이케이티(AKT), 아우테코(Auteco) 등의 오토바이 조립공장이 있으며, '21년 8월 기아(KIA)사가 공식적으로 콜롬비아에 약 4백만 달러를 투자해 4,235명 규모의 조립공장을 설립하겠다고 공식 발표
- 콜롬비아 자동차 산업은 45,000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와 330,000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며 GDP의 1.7%를 차지
- 연간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15만 대 이상이며, 콜롬비아 신차 시장 연 평균 판매량은 24만 대
- '22년 1월부터 8월까지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 61%는 에콰도르로 수출되었으며, 반대로 가장 많이 수입된 자동차는 브라질 생산 공장장에서 수출된 자동차로 총 수입액의 21%를 차지

〈 콜롬비아 신차 수출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천 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1~8
수출액	440	186	153	132
수출량	47	18	14	11
수입액	2,573	1,795	2,490	3,894
수입량	230	122	170	120

주: HS code 8702, 8703 기준

자료: GTA

● 인프라 건설

- 콜롬비아는 국토 전체적으로 대도시와 주요 항구, 공항 등 물류 이동 연결성 강화를 위해 4G, 5G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
- 4G 인프라 프로젝트는 '22년 8월 기준 총 사업 계획 중 68%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집행된 예산은 328억 달러
- 콜롬비아 인프라청(ANI)에 따르면 '22년 8월 콜롬비아 재무부의 244억 달러 예산 사용 승인으로 5G 인프라 프로젝트 중 6개 도로 건설, 2개의 하천 운하 프로젝트, 산 안드레스(San Andres) 공항 건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

〈 콜롬비아 4G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상황 〉

도로 신규 건설	750km	도로 복구 및 개선	1,772km
터널 신규 건설/복구/개선	10개	다리 신규 건설/복구/개선	401개

자료: ANI

■ 주요 3차 산업

● 소매업

- '20년은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21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이동 제한 완화, IT 기술과 전자상거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시장 환경 조성으로 하락세를 회복하고 판매 실적 증가 기록
- 콜롬비아 전자상거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민들 중 50%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이 중 20%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
- 특히, 콜롬비아 전자상거래는 GDP 성장에 3.6%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
- 경제 재활성화 방안으로 실시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제도 일시적인 소매 활동 회복에 기여

〈 콜롬비아 최근 3년간 월별 소매업 실질 판매 증감률 〉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2020	2021	2022
1월	7.5	-6.4	20.9
2월	13.2	1.2	4.9
3월	-4.8	20.1	12.0
4월	-42.9	75.0	23.3
5월	-26.8	22.8	34.8
6월	-14.2	24.7	17.2
7월	-12.4	26.9	N/A
8월	-17.1	32.0	N/A
9월	-0.8	15.3	N/A
10월	3.0	14.2	N/A
11월	4.1	7.4	N/A
12월	-2.8	15.9	N/A

자료: DANE(2022.9)

라. 정책·규제 환경

■ 수입 규제

● (반덤핑) 對한국 적용 수입 규제 없음

- 콜롬비아는 '15년 12월 11일 한국산 DOP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 후 수입 규제 시행
- '18년 6월 13일 재심을 통해 조치 연장으로 판정하여 '21년 6월 13일까지 규제 유지되었으며, 이후 반덤핑 조치 5개년에 대한 규제 종료 조사를 시행해 '22년 2월 28일 반덤핑 조치 종료 명령

〈 콜롬비아 對한 수입 규제 조치 과정 요약 〉

품목 분류	품목명	HS 코드	유형	조사 개시	최종 판정	비고
화학	DOP 가소제	2917.32.00.00	반덤핑	'15.4.17	'15.12.11	*'17.8.20: 반덤핑 종료 *'17.9.26: 반덤핑 재심 개시 *'18.6.13: 조치 연장 결정 *'21.6.13: 반덤핑 조치 5개년 규제 종료 조사 진행 *'22.2.28: 반덤핑 규제 종료

자료: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2022.8)

● (입법 동향) 콜롬비아 의회, 납 함유량 제한 법안 통과

- 콜롬비아 의회는 총회를 통해 유아 및 청소년의 중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납 함유량이 90ppm을 초과하는 장난감, 학용품, 의류, 액세서리, 식품 등의 사용·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규제 대상이 됨

■ 비관세 장벽

● 콜롬비아의 수입 제품 인증 등록 제도

- 위생 검역(SPS), 국제표준에 따른 기술규제(TBT) 및 환경규제 관련 수입품에 대해 인비마(INVIMA), 레티에(RETIE), 이카(ICA) 등 담당 기관의 인증 취득을 요구

〈 콜롬비아 수입 제품 유형별 인증기관 〉

종류	기관명	주관처	품목
SPS	INVIMA	국립 식품 의약품 감시원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약품
	ICA	농업협회(농림부 소속)	살아있는 가축 혹은 농·축·수 산림업 관련 제품
TBT	RETIE	광산에너지부	전기·전자제품
	RETIQ		냉각·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 혹은 전기·전자제품
	RETIRAP		조명 및 조명시설

자료: INVIMA, 광산에너지부, 농림부

■ 영구 수입 규제

● 영구 수입 금지 품목

- 황인 및 질산암모늄 등 위험 품목은 자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영구 수입 규제 제품으로 지정
- 대표 금지 품목으로는 화약(HS code 3601류 전체), 폭약(HS code 3602류 전체), 도화선, 도폭선, 뇌관(HS code 3603류 전체) 등, 무기, 총포탄 및 부분품(HS code 93류 전체)이 있음
- 또한 중장비나 기계류, 의류, 자동차 및 부품 등은 기부의 목적을 제외하고 중고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

■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 14가지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22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인 제2020-275호로 14가지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됨
- 또한 '25년 1월부터는 14가지 유형에 포함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유통·판매도 모두 금지 예정이며 '26년 1월부터는 제품 포장용 플라스틱 봉투, 음식을 섭취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접시, 식기류, 컵, 장갑류도 점차적으로 사용 및 판매 금지

〈 사용 금지 14가지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

1. 상품을 포장·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
2. 신문, 잡지나 세탁물 등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
3. 고기류 등 날음식을 포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과일 등을 포장하는 플라스틱 백
4. 즉시 소비 혹은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을 위해 액체류를 담는 플라스틱 컵
5.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접시, 칼, 포크, 숟가락, 장갑
6. 음료용 빨대
7. 풍선을 고정하는 플라스틱 스틱
8. 선물이나 장식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리본이나 식탁보
9. 음식을 포장 혹은 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
10. 즉시 섭취 식품을 포장 혹은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11.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면봉
12.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일회용 치실
13. 과일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닐 랩
14. 과일이나 채소 등에 부착하는 라벨 스티커

자료: Acoplasticos

■ 콜롬비아 기업들의 ESG 적용 사례

■ 콜롬비아 기업들의 새로운 ESG 패러다임

- 콜롬비아 내 많은 기업이 기업 운영의 기본 목표를 ESG로 지향하고 있으며, 사바나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ESG 투자의 63%가 긍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콜롬비아 최대 석탄 생산 기업 Drummond사는 내년 SDGs* 프로그램에 약 15.7백만 달러를 기부하는데, 중요 사회 프로그램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임. '21년 기준 장학금 혜택 수여자 수는 총 186명
 - * SDGs :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UN에서 발표한 세부 목표를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 목표를 의미
- 콜롬비아 5대 대기업인 시멘트 제조사 Argos사는 '22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사업 로드맵 수립에 5,290만 달러 예산 활용 승인
- 콜롬비아 대형 금융기업인 Bancolombia사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이동성 개발을 위한 자금 최대 4천억 페소(약 8.9억 달러) 지원 계획

2

시장 분석

- ※ (수입) 소비재 생산 기반 취약으로 인한 완제품 수입 의존도 高
- ※ (교역) 수출입 모두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존적 경향 有
- ※ (투자) 신정부의 反석유·석탄 산업 영향으로 FDI 관심 투자 종목 변화 전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완제품 중심의 수입 구조

- 콜롬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소비재 생산 기반이 취약
- 특히 전자제품, 의료기기, IT 제품 등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 및 일반 생활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

■ 빈부 격차로 인한 소비시장 양극화

- 콜롬비아는 지역 및 소득 계층별로 생활 소비 패턴(저소득층: 가격 기준, 고소득층: 브랜드 가치 기준)에 뚜렷한 차이
- 또한 콜롬비아 소비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가격에 민감한 편으로, 이런 소비심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저가형 할인 마켓이나 레스토랑이 콜롬비아 전역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음
- '22년 4월 통계청(DANE)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9.3%인 19.6백만 명이 빈곤층

〈 '21년 콜롬비아 인구 대비 소득 계층 격차 구분 기준 및 비중 〉

(단위: COP)

구분	빈곤층	취약층	중산층	상류층
전체 인구 대비	39.3%	31.0%	25.3%	3.8%
가구당 월 소득	354,031 이하 (USD 80 이하)	354,031~690,524 (USD 80~155)	690,524~3,700,000 (USD 155~828)	3,700,000 이상 (USD 828 이상)

주: 적용 환율 1USD = 4,467COP

자료: DANE(2022.4)

■ 중남미를 관통하는 내수시장 보유

- 콜롬비아는 인구 약 5.2천만 명으로 중남미 내에서 제3위 내수시장을 보유
- 안데스 공동체, 태평양 동맹 등 중남미 경제 블록 회원국으로 콜롬비아를 비롯해 주요 회원 가입국 전체 인구 2억 명의 거대 시장 진출 가능성 보유

■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시장

- 콜롬비아 통계청(DANE)의 '22년 인구 전망치(51,609,474명) 기준 콜롬비아 전체 인구 중 16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가 66.4%(34,265,895명)를 차지
- 대졸 사무직 초임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약 560달러 정도이며 '22년도 기준 콜롬비아 최저임금은 약 250달러
 - * '22년 콜롬비아 최저임금: 최저임금 1,000,000페소+교통보조비 117,172페소=1,117,172페소
 - * 적용 환율 1USD = 4,467COP 기준

■ 대도시 중심 저공해/소형 이동수단 수요 증가

- 보고타(Bogota), 메데인(Medellin) 등 대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 문제 대처와 환경오염 관심 인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위생 의식 변화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률이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해짐
- 특히 대도시들마다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 에너지원으로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자전거 사용 적극 권장 추세
- 이 외에도 비교적 저렴하고 주차 공간이나 특수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

나. 수출

■ 국가별 교역 현황

-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 미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로 미국 경제 변화에 민감
 - 최근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수출입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2년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봉쇄 정책, 호컨테이너 수급 및 운송 문제 등으로 對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8% 감소한 반면 對튀르키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이상 증가

〈 콜롬비아 10대 교역 대상국 (2022년 상반기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FOB)				수입 (CIF)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1	미국	8,428	26.54	1	미국	8,338	25.95
2	파나마	3,373	10.62	2	중국	7,764	24.16
3	인도	1,544	4.86	3	브라질	1,879	5.85
4	튀르키예	1,306	4.11	4	멕시코	1,621	5.04
5	브라질	1,304	4.11	5	프랑스	1,206	3.75
6	네덜란드	1,293	4.07	6	독일	936	2.91
7	중국	1,160	3.65	7	인도	705	2.19
8	에콰도르	1,108	3.49	8	스페인	597	1.86
9	칠레	944	2.97	9	일본	530	1.65
10	멕시코	845	2.66	10	아르헨티나	523	1.63
26	한국	288	0.91	14	한국	448	1.39
총 수출액		31,756	100	총 수입액		32,138	100

자료: SICEX(2022.8)

■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수출) '22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한 317억 달러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원유(27.83%), 유연탄(13.09%), 커피(6.36%) 등

〈 콜롬비아 10대 수출(FOB) 품목 (2022년 상반기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	금액	비중
1	2709.00.00	원유	8,836	27.83
2	2701.12.00	유연탄	4,158	13.09
3	0901.11.90	커피원두	2,020	6.36
4	8802.40.00	항공기	1,809	5.70
5	7108.12.00	금	1,292	4.07
6	2704.00.00	코크스	981	3.09
7	2710.19.22	기타 석유 및 역청유	743	2.34
8	0603.19.90	화훼	611	1.94
9	2702.60.00	페로니켈	504	1.59
10	0803.90.11	바나나	484	1.52

자료: SICEX(2022.8)

- (수입) '22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321억 달러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자동차용 휘발유(4.05%), 항공기(3.28%), 통신기기(3.18%) 등

〈 콜롬비아 10대 수입(CIF) 품목 (2022년 상반기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	금액	비중
1	2710.12.13	자동차용 휘발유	1,301	4.05
2	8802.40.00	항공기	1,054	3.28
3	8517.13.00	통신기기	1,021	3.18
4	2710.19.21	기타 석유화학제품	884	2.75
5	1005.90.11	옥수수	832	2.59
6	2710.12.99	기타 석유 및 역청유	539	1.68
7	8471.30.00	컴퓨터	507	1.58
8	3004.90.29	의약품	474	1.47
9	2304.00.00	오일 케이크	420	1.31
10	1001.99.10	메슬린	330	1.03

자료: SICEX(2022.8)

다. 투자 진출

■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정책

- 꾸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
 - '90년대 경제 자유화 이후 콜롬비아는 꾸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장려를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 보유
 - 또한 지난 '18년 수정된 법령 제1068호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 자유가 보장되며, 동 법령은 법적 구조 내에서 자본을 자유롭게 국가로 유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특별한 제한**은 없음
 - 다만, 투자 진출과 청산 시 콜롬비아 중앙은행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이유는 통화정책과 투자자금의 흐름을 조사 및 규제하기 위함
 - * 규정 제2000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자국 기업과 동일법 적용
 - ** 국방 및 핵폐기물 처리 사업 제외
- 콜롬비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매니저 자격 규제
 - 주식시장 내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 펀드매니저 자격 규제
 - 국가 전문 주식시장 등록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펀드매니저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22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약 120.4% 증가했으며, 특히 투자가 증가한 산업은 금융/부동산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
-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금융/부동산업, 물류/교통/통신 산업, 석유 산업으로 전체 산업 투자 금액의 약 66.5%를 차지

〈 콜롬비아 외국인 직접 투자(FDI)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1Q
11,299	13,989	7,459	9,310	5,186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2022.8)

〈 주요 산업별 콜롬비아 외국인 직접 투자(FDI)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산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1Q
석유 산업	2,540	2,755	457	811	686
농림수산업	204	365	193	246	74
광업	1,187	1,363	438	933	521
제조업	1,310	1,499	894	1,345	368
전력/가스/수도	141	316	764	1,052	327
건설	486	881	409	325	88
유통/요식/호텔	1,146	2,125	847	755	230
물류/교통/통신	1,550	1,006	538	1,045	697
금융/부동산	2,358	3,132	1,920	2,305	2,067
공공 서비스	377	547	998	492	128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2022.8)

● 국가별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22년 1분기 기준, 주요 투자국은 미국(10억 달러)이며 파나마(8.9억 달러), 스페인(7.5억 달러)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
- 한국은 '22년 1분기 기준 콜롬비아 투자활동이 없었으며 전년(36위) 대비 10계단 하락

〈 對콜롬비아 국별 투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2022. 1Q
1	미국	2,474.6	1,843.1	1,721.8	1,013.1
2	파나마	968.3	612.9	620.2	891.4
3	스페인	2,536.4	1,708.9	1,462.6	753.1
4	칠레	274.0	298.5	256.9	468.8
5	스위스	1,154.5	594.0	1,095.7	302.3
6	앵귤라	500.4	11.3	468.2	298.6
7	멕시코	505.5	-934.4	206.1	288.4
8	중국	-9.3	64.2	82.1	211.0
9	영국	964.2	269.2	399.5	139.4
10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361.4	726.2	219.5	107.8
46	대한민국	-2	4	1	-0.1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2022.8)

■ 콜롬비아 투자 진출 진입 장벽

■ 투자 진출 진입 장벽

- 방송통신업은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 금융업, 광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콜롬비아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콜롬비아의 투자 분야 및 관련 인센티브 〉

투자 분야	적용 인센티브
농림수산	농림수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진행 및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조업을 개시할 경우 소득세 10년간 면제
오렌지 경제	오렌지 경제 관련 산업* 투자 시 등록 자산이 1.25백만 달러를 넘지 않는 산업체에만 20년간 소득세 면제 * 소프트웨어, IoT, 데이터 분석, 콘텐츠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 육성 및 개발
메가-투자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非광산 산업에 2억 7천만 달러 이상 투자를 시행하여 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투자자 대상 소득세 27% 감면, 재산세 및 배당금 세금 면제 혜택 부여
과학기술 개발	과학기술 분야 프로젝트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세 100% 감면, 해당 투자를 진행한 기업에 투자 금액의 최대 25% 추가 소득세 공제 혜택 제공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투자 시 투자 금액의 최대 50% 소득세 공제

투자 분야	적용 인센티브
관광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에 호텔 서비스 제공 시 10년간, 인구 20만 명 이하 도시에 호텔 서비스 제공 시 20년간 소득세 9% 적용
환경세	환경 관리, 보존 및 개선에 대한 투자 시 투자금의 25% 세금 공제

출처: INVEST IN COLOMBIA

라. 프로젝트

- (ODA) 콜롬비아의 지리적 강점 보유에도 불구하고 주요 조선소 건조 역량은 4천~8천 톤 사이
 -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조선업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2년 2월 코이카(KOICA) 콜롬비아 사무소는 5백만 달러 규모 '콜롬비아 조선업 기반 구축' ODA 사업 추진
- 콜롬비아의 최대 규모 민간 조선소 아스티비크(Astivik)社 건조 역량은 약 4천 톤
 - 아스티비크社의 생산 기반은 '70년대 조선소 수준 시설과 유사하며 중·소형 예인선, 바지선, Floating dock 등을 제조
 - 콜롬비아 국영 조선소(Cotecmar)는 '해상 전략 발전 계획(Plataforma Estrategica de Supercifie)'을 통해 해양/조선업 기술 혁신 및 자체 건조 역량 강화 추진, '27년까지 3천 톤급 구축함 최대 5척 건조가 목표

〈 콜롬비아 해상 전략 발전 계획(PES) 단계별 추진 내용 〉

단계	진행 과정	주요 계획
1	Floating Dock 설치	현재 3.6천 톤을 18.0천 톤 Lifting 시설로 확대
2	Landing Platform Dock 구축	3.7~7.3천MT 시설 확보
3	구축함 건조 능력 확보	3천 톤급 구축함 건조(5척)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가. 교역

■ 對콜롬비아 수출입 현황

● '22년 상반기 한국 무역수지 흑자

- 한-콜 교역 구조는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 형태
-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 후 '21년부터 반등 효과로 수출이 증가해 '22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9%, 수입은 2.4%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 유지 중

〈 한국의 對콜롬비아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2016	853	-24.43	432	33.8	420
2017	813	-4.6	651	50.5	162
2018	1,012	24.4	834	28.1	177
2019	1,143	13.0	718	-13.9	424
2020	593	-48.1	684	-4.8	-91
2021	898	51.4	704	2.9	194
2022. 상반기	516	19.9	315	2.4	201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8)

● (수출) 콜롬비아 자체 제조업 기반 취약 및 기술 부족으로 기술집약적인 완성품 및 자본재가 주를 이룸

- '22년 상반기 기준,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타 석유화학제품, 의약품으로 상위 3개 제품이 전체 수출 점유율의 약 22.5%를 차지

〈 한국의 對콜롬비아 10대 수출 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1		2022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 1,500cc 이하	77	85.2	46	18.9
2	기타 석유화학제품	73	44.7	41	37.8
3	의약품	32	-3.5	26	14.4
4	자동차부품	56	24.3	24	-18.7
5	기타 건설중장비	23	215.6	20	87.3
6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30	64.3	18	49.7
7	알루미늄판	25	91.9	18	42.0
8	윤활유	17	43.0	16	1,032.3
9	철 및 비합금강 냉연강판	2	-79.0	14	3,784.0
10	착색 아연도강판	26	70.1	13	23.7

주: MTI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8)

● (수입)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차 상품 수입

- '22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對콜롬비아 10대 주요 수입품 중 다섯 품목이 유연탄, 커피, 화훼 등 주로 1차 상품 위주

〈 한국의 對콜롬비아 10대 수입 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1		2022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유연탄	286	-19.8	90	-9.1
2	커피	128	25.5	88	60.4
3	기타 합금철	59	111.9	54	226.4
4	동 스크랩	72	36.5	32	21.5
5	바나나	23	11.3	10	-19.4
6	카네이션	9	58.7	8	62.7
7	알루미늄 스크랩	11	183.3	8	89.9
8	농약 원제	10	27.1	5	-0.8
9	커피 조제품	10	7.5	5	4.9
10	기타 화초	4	26.3	3	43.2

주: MTI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8)

■ 한-콜 FTA 활용률

- '21년도 기준 한-콜 FTA 활용률은 수출 시 52.8%, 수입 시 94.2% 기록

〈 한-콜 FTA 연도별 활용률 변화 〉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17.4	49.8	53.0	52.9	47.9	52.8
수입	66.4	87.2	90.3	88.9	88.4	94.2

자료: 관세청(2022.8)

■ 한-콜 FTA 산업별 활용률 현황

- '21년 산업별 기준, 수출 시 한-콜 FTA 활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전기제품(73.7%)이며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이 각각 73.1%, 52.6%로 집계
- 수입 시에는 광산물이 100.0%로 집계되었으며 농림수산물이 93.1%로 2위 기록

〈 한-콜 FTA 산업별 활용률 (2021년 기준) 〉

(단위: %)

산업별 (MTI 1 기준)	수출			수입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농림수산물	0.2	6.5	21.6	93.5	95.4	93.1
광산물	1.3	0.0	10.1	99.8	76.5	100.0
화학공업제품	15.6	26.0	22.5	4.8	88.4	76.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57.8	54.3	52.6	74.1	59.6	40.0
섬유류	39.4	36.3	40.9	23.0	5.7	11.2
생활용품	16.7	24.2	16.8	82.8	75.5	83.4
철강금속제품	0.9	1.7	4.4	5.0	0.0	0.0
기계류	69.9	70.1	73.1	1.9	38.6	33.9
전자·전기제품	56.5	51.5	73.7	68.3	69.9	2.5
잡제품	0.0	0.1	0.0	0.0	0.0	0.0

자료: 관세청(2022.8)

나. 투자

■ 한-콜 투자 현황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동향

- '22년 8월 기준, 우리 기업 약 22개 사가 진출해 있으며 대부분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 중
- 한국의 對콜롬비아 주요 투자 분야는 도매 및 소매업

〈 한국의 對콜롬비아 투자 현황 〉

(단위: 개, 건, 백만 달러)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2018	2	4	8	4	10
2019	3	3	7	3	8
2020	2	4	8	4	11
2021	1	1	5	2	4
2022.3	0	0	1	0	0
총합	8	12	29	13	3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2.8)

〈 2019~2022년 1Q 기준 한국의 對콜롬비아 업종별 투자 현황 〉

(단위: 개, 백만 달러)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금액
제조업	0	2	2
운수 및 창고업	0	0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0
도매 및 소매업	5	6	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2.8)

☛ (공급망) 페로니켈

- 콜롬비아 페로니켈은 6개 지역(모로 펠론(Morro Pelon), 이투안고(Ituango), 메데인(Medellin), 플라네타 리카(Planeta Rica), 우레(Ure), 타라사(Taraza))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코르도바(Cordoba)주에 위치한 세로 마토소(Cerro Matoso) 광산에서만 생산. 동 광산주는 세로 마토소(Cerro Matoso)사로 '21년 기준 니켈 생산량은 약 3,800만 톤이며 그 중 페로니켈 생산량은 약 4.3만 톤
- 세로 마토소(Cerro Matoso)사는 페로니켈 연간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2년 3월 북플라네타 리카(Planeta Rica) 지역과 타라사(Taraza) 지역 추가 탐사 계획 발표
- 특히 북플라네타 리카(Planeta Rica) 지역 프로젝트를 실현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페로니켈 자원은 총 1,600만 톤으로 추산

〈 콜롬비아 페로니켈 수출 현황 〉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수출량	139	125	108
수출액	545	435	528

주: HS code 7202.60 기준

자료: UPME, GTA

- 콜롬비아 페로니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21년 총 수출량의 약 48%를 차지, 2위와 3위는 각각 독일(8.81%)과 한국(8.80%)이 차지

〈 콜롬비아산 페로니켈 수출량 동향 〉

(단위: kg, %)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20/'21 증감률
1	중국	101,593,512	74,559,469	52,497,890	-29.59
2	독일	7,728,457	12,087,040	9,565,632	-20.86
3	한국	/	6,025,614	9,550,929	58.51
4	네덜란드	6,898,722	8,023,792	8,225,318	2.51
5	이탈리아	/	1,383,435	6,124,774	342.72
6	일본	8,527,013	6,335,026	5,1485,847	-18.14
7	미국	370,994	923,130	4,421,957	379.02
8	대만	635,890	3,266,121	3,555,602	8.86
9	영국	/	/	1,636,380	/
10	벨기에	/	/	1,114,390	/

주: HS code 7202.60 기준

자료: GTA

다. 협력 유망 분야

ODA

- (조선) 코이카(KOICA) 콜롬비아 사무소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와 콜롬비아 조선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5백만 달러 프로젝트 협의 체결. 22년 4월 '알리안사 프로아(Alianza Proa)' 출범식 개최
- 동 사업은 4년간 진행 예정으로 카르타헤나에 위치한 조선소의 신조 기술 역량 및 가치사슬 구축, 콜롬비아 강선 신조 건조 및 경쟁력 강화가 주요 목적으로 조선 분야 관리 및 기술 역량 강화, 신조 역량 강화 실습실 구축, 조선소-공급업체 간 가치사슬 구축 등 지원 예정
- (에너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콜롬비아에서 추진하는 약 160억 원 규모의 자가 발전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태양광 발전 EPC와 모듈 제조설비가 가능한 한국 기업을 주관 기관으로 선정
- 동 사업은 콜롬비아 수크레(Sucre) 지역에 거주하는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프로젝트 진행 예정

2023

콜롬비아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 ※ (진출) 신정부 정책에 맞는 신규 개발 산업 중심으로 진출방안 모색 필요
- ※ (품목) 농업,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로 현지 시장 진출 판로 확보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콜롬비아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아시아 국가 중 유일 FTA 체결국으로 관세 혜택 품목 다수 보유
- 자동차, 전자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쌓은 한 국산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 지속적인 한국 문화 수출로 인한 對한국 문화적 관심도 상승

약점 (Weakness)

- 수입시장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중국산 상품
-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수출 시장 진출 장애 발생

기회 (Opportunity)

- 콜롬비아 제조업 생산 기반 부족으로 완제품 수입 의존도 高
- 신정부 정책으로 농업, 에너지, 제조 기술 향상을 위한 정부 투자 및 혜택 제공
- 태평양 동맹, AP 등 주변 중남미 시장을 관통하는 시장 진출 환경
- Zona Franca 운영 등 해외 기업의 對콜롬비아 투자 진출 유치를 위한 혜택 보유

위협 (Threat)

- 페트로 정부의 자체 제조 생산 기반 개발 계획으로 수입 제품 의존도 하락 위험 有
- 폐소화 평가절하 및 인플레이션 증가 추세로 수입 업체 및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 가중
- 페트로의 FTA 재협상 공약 이행 가능성 有
- 중국의 콜롬비아 포함 남미 국가 FTA 체결 가속화 움직임

전략 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국 문화 수출로 발생하는 관심 증가 품목을 중심으로 완제품 수출 방안 모색
ST 전략 (강점 활용)	• 한-콜 FTA의 관세 면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완제품 수입 가격경쟁력 확보
WO 전략 (기회 포착)	• 정부 집중 개발 예정 사업 중심으로 기 수출 제품에서 벗어나 新수요를 겨냥한 진출 진로 개척
WT 전략 (위협 대응)	• ZF를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및 생산 라인 마련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주변국 시장 진출 판로 확보

진출전략

- 한국 문화 전파로 파생되는 수출 수요 조사
- FTA 혜택을 적극 활용한 수출 공략
- 신정부 정책 중심 산업 파악
- 현지 생산 후 판매 및 수출 판로 확보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3년 진출전략

구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농업	- 정부 집중 개발 프로젝트 분야로 다양한 개발 혜택 제공 예정 - 非경작지 경작 독려 정책으로 농업 분야 소비재 및 기계류 수요 증가 전망 - 종자 육성, 동식물 생태계 다양성 보호 및 연구 등 농업 및 환경 기술 분야 협력 수요 가능성 有 - 농업 현대화로 스마트팜 등 IT 접목 농업 기술 수요 증가 전망
재생에너지	- 풍부한 재생에너지원 보유한 콜롬비아 내 발전 프로젝트 개발 수요 多 - 수소 생산 파일럿 실행 등 재생에너지원 활용 개발을 위한 콜롬비아의 적극적인 미래 플랜 수립 - 에너지 저장, 수집 및 전기 전환용 기기류 수입 의존도 高 - 공동 기술 개발 및 이전 협력 참여 등을 통한 사전 관계 형성으로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정보 수집
에너지원 전환과 파생 상품	- 전 세계적으로 석유/석탄과 같이 유해한 에너지원에서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증가 - 이에 따라 콜롬비아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저공해, 친환경, 유기농, 자연주의를 앞세운 파생 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 - 이에 따라 친환경 혹은 생분해 포장 제품류,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에너지원 전환 움직임을 따라 변화하는 현지 시장 주요 키워드 중심의 파생 상품 시장 집중 공략
新사업 수요 개발	신정부의 집중 개발 예정 산업 분야 중점 공략 세계적 흐름에 따른 소비 키워드 분석과 수요 증가 상품 시장 집중 공략

2-1. 新수요 파악 - 정부 교체에 따른 핵심 개발 산업 중심으로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前 정부에 이어 페트로 신정부도 중요 개발 산업으로 농업 개발 및 현대화 선택
 - * 마약 산업의 근간이 되는 코카인 재배 면적 감소 및 식량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농업 개발 독려
- ※ 페트로 대통령은 농업 발전으로 식량 확보 및 농업의 현대화 추진 예정
 -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확보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농업 발전 계획
- ※ 커피, 바나나, 화훼, 아보카도 등 對유럽 및 아시아 농산물 수출 사례 증가
 - * 증가하는 수출 시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재배 방식을 고수하는 농업 문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페트로 신정부의 주요 개발 산업 중 하나인 농업 개발

- 콜롬비아 농업농촌계획청(UPRA)의 발표(2021.9)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총면적 중 농업 면적(불법 작물 포함)은 34.4%인 3,923만 헥타르이며, 아직 약 3,100만 헥타르의 미개척 농업 면적이 존재
- 특히, '21년 기준 약 490만 헥타르에 준하는 7,320만 톤의 농산물을 수확하였으나 국가 농업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약 270만 명의 농업 분야 생산자 중 83%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없고, 약 10%만 기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페트로 대통령은 식량 안보 확보와 광물 및 석유 추출 산업으로 유지되는 국가 산업 개혁을 위해 농업 개발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함
- 특히 반군 세력에 의해 불법 점유되어 코카인의 원재료인 코카인이 재배되고 있는 사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마약 유통 세력으로부터 코카 재배지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농부에게 대여하여 농산물 경작을 독려, 농업 분야에 신기술 적용으로 농업 현대화 등 다양한 농업 개발 방안을 제시
 - * 미국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실(ONDCP)은 '21년 콜롬비아 코카인 재배 면적은 234,000헥타르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고 추정. 또한, 콜롬비아 국방부는 '21년 기준 코카인 재배 면적 중 103,000헥타르 이상 근절, 5,700개 이상의 마약 제조 실험실 폐쇄, 757톤 코카인 압수 결과 발표
- (정책) '17년 농업 연구 및 기술 개발, 농업 확장 및 혁신을 위한 교육을 위해 국가 농업 혁신 시스템(SNIA)을 설립하고 시행령 제1876호를 발표. 페트로 정부는 동 정책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을 강화하여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 라인을 확대할 예정
 - * 시행령 제1876호 : 콜롬비아 농업 부문의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계획(PECTIA)으로 16개의 신기술 도입 전략과 81개의 기술 지원 접근 목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7년까지 적용됨

● 콜롬비아 농산물의 세계 수출 시장 진출 확대

- 콜롬비아가 수출하는 주요 농작물은 커피, 화훼, 팜유, 바나나 등 과일류, 설탕으로 수출 비중은 '22년 상반기 수출총액 286억 달러 기준 약 17.8% (50억 달러) 차지. 콜롬비아의 수출 농작물 중 약 62%가 북미와 유럽으로 향하며, 콜롬비아산 농작물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농작물 수출액 기준 약 41%를 차지

〈 콜롬비아 5대 농산물 수출액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커피차	2,376	2,537	3,206	2,100
화훼	1,496	1,431	1,756	1,242
식용 과일	1,158	1,284	1,409	762
동식물유	525	599	772	695
설탕	485	506	500	293
총합	6,039	6,358	7,643	5,092

자료: GTA

〈 콜롬비아 5대 수출 농산물 수입 상위 5개 국가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1	미국	2,493	2,505	3,043	2,100
2	네덜란드	386	383	417	350
3	벨기에	352	384	463	259
4	독일	345	320	383	232
5	캐나다	232	242	333	216

주: HS CODE 09, 06, 08, 15, 17 총합 기준

자료: GTA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농업 분야 적용 가능 스마트팜 등 IT 기술, 종자 연구, 생태계 다양성 보호 연구 등 신정책에 맞는 다양한 진출 유망 분야 집중 공략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형 스마트팜 시장은 '20년 기준 2.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5년까지 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특히 한국 스마트팜 기술은 온실이나 농작물에 국한되지 않고 목축업 축사 등에 적용해 가축의 생육 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등 기술을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 한국의 1세대 스마트팜 연구 개발은 '14~'18년에 중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동 개발 결과는 실용화를 위해 KS 국가표준으로 제정, 등록 완료
 - 농업 기술 현대화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술, 작물 관리용 드론, 센서 시스템을 활용한 작물 습도 및 성장 환경 조절 기술 등 수출 유망
 - 특히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위해 비닐하우스가 필요한 화훼산업, 커피원두 건조시설, 토마토와 같은 채소류 생산지, 돈사(豚舍) 등에 활용 가능성 높

2-2. 시대적 변화 읽기 - 전력 에너지원 변화 흐름에 따른 진출 품목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22년 9월 기준 총 18개의 재생에너지원 활용 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취득 대기 중
- * '22년 콜롬비아 非전통 에너지원 활용 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 용량 2,500MW 이상 달성
- ※ 콜롬비아의 청정 에너지원 전환 정책에 따른 콜롬비아 기업들의 수소 생산 파일럿 가동
- * 콜롬비아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소 및 청정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원 생산 개발 시작
- ※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모듈 등 전력 에너지 건설을 위한 품목 대부분 수입에 의존
- * 자체 생산 기술 부족으로 수입 의존도 高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세계적인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움직임과 변화하는 콜롬비아 에너지 정책

- 콜롬비아 정부는 '22년 5월 31일 시행령 895호 발표. 주요 내용은 비전통 에너지원의 개념과 비전통 에너지원 발전에 대한 세제 혜택(녹색·청색 수소 프로젝트 사용 장비, 서비스 등 수입 시 부가세 면제), 비전통 에너지원 프로젝트 단계별 활동 등이 명시
- 콜롬비아는 현재 20개의 태양광 발전소, 2개의 육상 풍력 발전소, 10개의 대규모 자가 발전 프로젝트 및 2,500개 이상의 소규모 자가 발전 태양광 프로젝트가 존재
- '22년 광산에너지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비전통 에너지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 설치 용량이 2,500MW를 초과했다고 발표
- '21년 WEF는 115개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지수를 조사, 발표. 콜롬비아는 29위(우루과이 13위, 코스타리카 26위)로 콜롬비아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환 국가의 선두에 있음을 보여줌
- 세계적인 화석연료 사용 감소 움직임에 따라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에코페트롤(Ecopetrol)사는 수소(녹색, 청색, 회색) 생성 전략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6개 국제 기업(프랑스의 토탈 에렌(Total Eren),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 스페인의 에이치투비투(H2B2), 영국의 엠파티(Empati), 일본의 미쓰이(Mitsui))와 생산 제휴. 주요 목표는 수소 생산의 탈탄소화로 '40년까지 수소 100만 톤 생산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저장장치, 태양광 모듈 등 발전소 관련 기계류 수출 유망

- 콜롬비아는 전력 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 생산 기반이 거의 전무해 전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
- 특히 저장장치나 태양광 모듈과 같은 발전에 주요한 품목은 지금까지 자체 개발 제품이 없어 수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전망
- 특히 한국의 경우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저장 장치의 품질 신뢰도가 높고 對콜롬비아 수출에서 비교적 상위 국가에 위치한 편이나 저렴한 중국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 면에서 다소 뒤처진 경향이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 품질 보증기간, 지속적인 사후관리 같은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콜롬비아 태양광 모듈(HS CODE 8541.40) 수입 동향 〉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20/'21 증감률
		2019	2020	2021	
	계	37,196	35,423	149,354	321.63
1	중국	30,079	31,413	145,174	362.14
2	독일	1,155	455	820	80.36
3	미국	593	441	675	52.85
4	멕시코	278	263	673	155.78
5	베트남	19	87	474	443.75
6	대한민국	1,043	224	403	79.77
7	이탈리아	349	135	167	24.01
8	폴란드	349	250	120	-52.01
9	일본	279	80	119	47.64
10	인도네시아	148	68	59	-12.86

자료: GTA

〈 콜롬비아 에너지 저장 장치(HS CODE 8507.60) 수입 동향 〉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20/'21 증감률
		2019	2020	2021	
	계	27,244	25,688	37,920	47.62
1	중국	19,550	21,248	32,154	51.33
2	미국	2,824	1,370	965	-29.55
3	말레이시아	1,609	782	672	-14.03
4	홍콩	93	147	524	255.48
5	대한민국	117	136	520	281.05
6	멕시코	882	94	462	391.46
7	영국	23	81	359	344.85
8	독일	128	130	266	105.07
9	체코	6	72	235	226.20
10	폴란드	125	105	230	119.86

자료: GTA

2-3. 친환경으로 가는 소비 - 주요 선호 소비 키워드 상품 수요 집중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계적으로 친환경, 환경보호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소비 선호 변화 추세
 - * 콜롬비아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 통과 및 생분해 혹은 재활용 소재 포장지나 용기로 교체 움직임 활발
- ※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활용 적극 권장 및 혜택 제공 중
 - *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나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매출 상승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움직임과 생분해 포장용기 사용처 증가
 - 그린피스 콜롬비아(Greenpeace Colombia) 지부에 따르면 콜롬비아 사람들은 평균 수명 77년간 일주일에 약 6개의 플라스틱 봉투를 사용하는데, 이는 연간 288개, 평균 수명 대비 총 22,176개로 무게로 계산하면 1.8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한다고 보고
 -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페트로 정부의 첫 정책인 비닐봉투 사용 규제 법안 제2016-668호가 적용되기 시작한 '17년부터 '20년까지 비닐봉투 사용량은 65%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애초 '27년까지 소비량 60% 감소하기로 한 목표를 예상보다 빠르게 초과 달성한 셈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장갑, 포장지와 포장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다시 급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이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 섬유를 활용한 생분해 성분의 포장용 봉투·용기 수요 증가
 - 콜롬비아 제조업체들은 제품 포장을 위해 재활용이나 퇴비화, 생분해가 가능한 포장지로 대체하거나 자체적으로 포장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의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한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는 추세
-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등 저공해 이동수단 수요 증가
 - 보고타(Bogota), 메데인(Medellin) 등 콜롬비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매년 심각해지면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수요가 증가하던 중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개인형 이동수단 수요가 급증하는 계기로 작용

〈 콜롬비아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판매 현황 〉

(단위: 대)

2019	2020	2021	2022. 1~7
2,312	2,169	2,627	1,720

자료: Andemos(2022.7)

- 특히 콜롬비아 정부는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1%로 설정하면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혹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수단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콜롬비아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콜롬비아 하이브리드/전기 신차 판매 현황 〉

(단위: 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1~9
BEV	923	1,311	1,296	2,551
HEV	1,769	4,229	14,694	17,037
PHEV	442	468	1,712	1,991
총합	3,134	6,008	17,702	21,579

자료: Andemos(2022.9)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시장 키워드 변화에 맞춘 친환경 상품 및 파생 상품 시장 집중 공략

- 이미 콜롬비아 내에서 높은 시장 선점 비율을 가진 중국이나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관심 소비 키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콜롬비아 소비자들의 수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품은 친환경, 저공해, 자연주의, 웰빙 혹은 석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으로,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생분해 포장용기 제조가 가능한 원재료 혹은 포장용품, 퇴비화 기술, 완제품의 경우 재활용 가능 용기를 활용한 제품 포장, 전기를 활용한 개인형 이동수단 혹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중국이나 미국과 다른 차별성을 내세우거나 관심 수요 품목의 영향을 받는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는 진출방안이 필요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 수출 유망 품목 〉

품목명 1		
필수 아미노산과 에테르	선정 사유	필수 아미노산은 가축, 가공류, 애완동물 관리 등에 사용되는 식품 및 수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화합물
	시장 동향	콜롬비아 국내 사료 및 수의약품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수요 고급화 심리 변화에 따라 제품 생산에 효과적인 원료 구매에 관심이 높은 편.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우 사료 등 동물용 먹이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
	경쟁 동향	국제적으로 많은 공급업체가 있지만 높은 수요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어 콜롬비아 기업들이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
	진출방안	이 제품의 경우 주로 B2B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구매자와의 접촉, 거래하거나 동물용 식품 및 수의약품 생산업체 다수와 유통하는 업체(도매상)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좋음
품목명 2		
비료용 질산염 혼합물	선정 사유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세계적 영향이 식량 생산에 매우 중요한 비료 및 소비재 유통망에 빠르게 영향을 미침
	시장 동향	콜롬비아와 세계의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는 농산물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침. 특히 콜롬비아는 열악한 비료 생산 기반 때문에 수입 비료 의존도가 높음
	경쟁 동향	유럽 국가의 농업 관련 지식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음.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비료 부족과 느린 경제발전 등으로 수입 비료 수요 높음
	진출방안	콜롬비아에는 대부분 농업용 소비재 구매는 농업 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시장 진출 시 유통보다 농업 조합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품목명 3		
폴리에스테르 섬유	선정 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현재 섬유 산업의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주로 중국(40%)과 한국(20%)에서 수입 중
	시장 동향	콜롬비아 섬유 제조업은 가구나 의류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며 꾸준한 수요를 유지
	경쟁 동향	중국산의 수입이 높으나 납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품질에 하자가 있으며 한국산의 경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
	진출방안	한국 수출업체의 경우 큰 제조업 회사들과 접촉을 하거나 대기업들과 직거래를 하는 도매상들과 접촉하는 것이 다른 방법에 비해 빠른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됨

품목명 4		
연질폴리우레탄 원사	선정 사유	콜롬비아 섬유 시장은 수입 원자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 수요가 높음
	시장 동향	콜롬비아 제조업체들은 고품질이면서 효율적인 수입 운송이 가능한 곳을 찾는데 중국산 수입이 대부분임. 하지만 품질에 대한 불만족, 납기일을 못 맞추는 일이 잦아져 콜롬비아 업체들은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새로운 공급자를 찾고 있는 상황
	경쟁 동향	과거에는 대부분의 수입 섬유는 중국과 거래했으나 현재는 비즈니스 진행 및 품질에 신뢰도를 주는 他 국가 수입 관심도가 높은 편
	진출방안	대규모 생산업체들은 외국의 섬유 공급업체들과 직접 수입 계약을 진행. 소규모 의류 생산업체들의 경우 이들 업체에 물건을 공급하는 중대형 도매상과 직접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
품목명 5		
선박용 부품	선정 사유	한국 ODA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이 분야는 공공, 민간의 대형 투자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박의 대량 생산이 목표이나 이를 위해서는 부품 수입이 필요
	시장 동향	콜롬비아는 2020년의 경기 침체 이후, 정부가 경제 재활성화를 위해 특정 분야에 장단기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 중 하나가 소형 선박 생산 및 상용화, 즉 조선업
	경쟁 동향	콜롬비아는 국내에 부품 납품업체가 거의 전무하여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수입 중. 현재까지 국내 공급업체가 없으므로 외국 공급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부품의 호환성이 중요한 요소
	진출방안	현재 콜롬비아는 한국과 국가 간 협력 사업을 통해 조선업 분야에서 진전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민간업체들이 조선업 관련 물자 구매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관계 구축에 기반을 제공함. 따라서 ODA 후속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공략
품목명 6		
태양광 모듈	선정 사유	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소, 재생에너지원 개발 움직임과 페트로 신정부의 집중 개발 산업 중 하나로 콜롬비아 내 생산 기반이 전무한 태양광 모듈은 전량 수입에 의존
	시장 동향	콜롬비아는 소형 자가 발전 태양광부터 대규모 발전까지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2,500개 이상 존재
	경쟁 동향	중국산 모듈의 수입이 가장 많으나 한국 수입도 증가 추세
	진출방안	프로젝트 수주 혹은 현지 태양광 설계 및 설치 기업 중심으로 수요 개발 필요

품목명 7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정 사유	'21년 콜롬비아 신차 판매 중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는 7.06%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94.8% 판매 성장을 기록
	시장 동향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 자동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요 高. 개인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 주차장에 전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 無.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기 자동차에 비해 훨씬 多
	경쟁 동향	주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브랜드는 크게 한국, 미국, 일본. 한국과 미국의 경우 자국에서 직접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으나 일본 브랜드의 경우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과 브라질 2곳에서 수출 중
	진출방안	저공해 자동차 판매 수요 증가 추세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 수요 또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 유통 시장 중심의 진출방안 모색 필요
품목명 8		
전기 자동차	선정 사유	'21년 콜롬비아 신차 판매 중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는 7.06%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94.8% 판매 성장을 기록
	시장 동향	현재까지도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요가 높으나 전기 충전 인프라가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성장 가능성 有
	경쟁 동향	콜롬비아 전기 자동차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일반 차량보다 버스와 같은 전기 상용차류가 多. 이 외에는 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도 수입하고 있으나 주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승용차 브랜드임
	진출방안	저공해 자동차 판매 수요 증가 추세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 수요 또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 특히 전기 자동차의 경우 전지 및 에너지 저장 기술뿐만 아니라 충전소 인프라 관련 수요 증가가 전망됨
품목명 9		
소형 전기 모빌리티	선정 사유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 수 기준 신규 소형 전기 모빌리티는 총 1,720대가 판매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판매량인 1,421대와 비교했을 때 21% 증가한 수치
	시장 동향	보고타, 메데인과 같이 교통 체증이 심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편리 하면서 빠른 모빌리티를 선호. 특히 소형 전기 모빌리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면허증이나 운전자보험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고, 자전거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요구하지 않아 쉽게 구매가 가능

	경쟁 동향	전기 스쿠터는 중국 기술을 적용한 콜롬비아 자체 조립 브랜드 존재. 전동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의 경우 중국산이 80% 이상 차지
	진출방안	현지 전력 상황에 맞는 외수용 제작 및 최대 속도 제한(25km/h) 기술을 탑재하여 판매할 경우 교통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장 진출 폭을 넓힐 수 있음
품목명 10		
생분해성 포장지	선정 사유	콜롬비아 환경부는 2021년 플라스틱 사용 억제 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100% 재활용하거나 혹은 퇴비화할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하도록 함
	시장 동향	2022년 상반기 콜롬비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법안 의회 승인으로 마트 등 대부분의 상업업체들은 재사용 혹은 생분해 봉투로 교체
	경쟁 동향	플라스틱 포장 제품 제조 기업들이 생분해성 원재료를 활용해 일회용 봉투, 포장지, 식기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장지 제조 기업들은 생분해성 원재료 수입 선호도 증가 추세
	진출방안	플라스틱 포장 수요가 높은 식품 생산 혹은 대형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수요 개발이 필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 수출 유망 품목 〉

품목명 1		
핀테크	선정 사유	콜롬비아는 현재 금융 분야의 기술 융합과 더불어 더 많은 시민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공공 민간 분야가 핀테크 부문에 여러 개발 투자 중. 또한 핀테크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 불법 금융 거래 혹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 중
	시장 동향	핀테크와 디지털 बैं킹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접근이 쉽고 은행 업무를 단시간에 최적화시킨다는 점에서 사용 고객 수 증가 추세
	경쟁 동향	신규 금융기업들 외에도 콜롬비아 일부 전통 금융기업들도 핀테크 서비스로 전환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혁신 세부 사항에 따라 경쟁우위가 좌우됨
	진출방안	핀테크 개발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 서비스 공동 개발로 중남미 금융 서비스 시장 진출 혹은 IT 지원 서비스 시장 진출 판로 확보
품목명 2		
디지털 교육 서비스	선정 사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접근 불균형 논란 점화. 페트로 신정부는 저소득층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개선 및 현대화 계획 약속. 따라서 교육, 특히 이러닝(E-learning)과 에듀테크 시스템 부문 투자 확대 전망
	시장 동향	코로나19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존의 교육 환경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고, 직장인들도 효율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경쟁 동향	콜롬비아의 기존 교육기관, 출판사,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더 많은 학생에게 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서비스 기회로 보고 있음
	진출방안	적극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교육 서비스 파일럿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교육 서비스 구매 기관에서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판매 경쟁력 확보
품목명 3		
공공 및 민간 분야 사이버 보안	선정 사유	코로나19로 다양한 통행 제한이 장기간 실시되고 이커머스 활용도가 높아지자 사이버 사기 사례 증가 계기가 됨
	시장 동향	콜롬비아 정부는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투자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목적의 보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음
	경쟁 동향	문화적·지리적으로 콜롬비아와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 칠레, 멕시코와 미국이 사이버 보안 분야 주요 진출 국가
	진출방안	對정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공공 입찰 시스템을 알아야 하고 콜롬비아 등록 회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낙찰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23년 예정 KOTRA 보고타 무역관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분야	'23년 개최 희망 사업
의료/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 콜롬비아 의약품 사절단
소비재	화장품	• K-Lifestyle in Colombia
ICT	스마트팜	• 한-중남미 스마트팜 협력 파트너링 * 보고타, 산티아고, 상파울루 협업
	스마트시티	• 한-중남미 스마트시티 협력 파트너링 * 보고타, 상파울루, 키토 협업
그린	수처리	• 한-콜롬비아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수소	• 한-콜롬비아 수소 협력 파트너링

주: 사업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新 세제 개혁안 의회 통과 및 적용 시작	2023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콜-아랍에미리트 FTA 체결 2차 협상 논의	잠정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콜롬비아 국제 섬유 전시회	2023.05	
콜롬비아 국제 농업 전시회	2023.07	
콜롬비아 국제 뷰티&건강 전시회	2023.10	
국제 포장 전시회	2023.11	
콜롬비아 방산 전시회	2023.11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화목	과장	보고타 무역관	+57 601 637 5099(104)	marcos.kim@kotra.or.kr
2	Daniel Cano	specialist	보고타 무역관	+57 601 637 5099(116)	daniel.cano@kotra.or.kr
3	김다희	specialist	보고타 무역관	+57 601 637 5099(112)	maya.kim@kotra.or.kr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첫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